

마음으로 하는 용서

Forgiving from the Heart

마태복음 18:3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9월 23일 설교

³⁵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노라

지난 주일 야외예배 때 이 권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크-은 죄를 지었어요.” 크-은 죄는 큰 죄보다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 가슴이 절렁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죄라 하면 보통 살인, 간음, 사기, 폭력, 뭐 이런 건데 권사님 얼굴이 말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제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큰 죄를.....”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권사님이 “저희가요, 큰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한 교우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온 과자를 누가 교우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라 해서 저희가 방금 그걸 다 나누어 먹었어요.”

마음이 놓이면서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권사님 심각한 표정에 장난기가 좀 섞여 있긴 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연극 배우 출신 아닙니까? 제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정말 큰 죄네요, 그죠?” 하고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대신 “내가 권사님과 그 과자를 먹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아주 엄숙하게 사죄를 선포했습니다. 혹시 같이 드신 분들, 제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권사님이 큼직한 수박을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그걸 회개의 열매로 보고 받아서 집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런 대화를 웃음 가운데 주고받은 다음 용서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용서의 능력에 대해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맞본 사람은 그 용서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생각 하나가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용서하고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같지요. 예수님 비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이 주인에게 빚이 있어 주인이 그걸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의 친구도 그 종에게 빚이 있었지만 그 종은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처넣었으니 둘 다 같은 빚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는 달란트고 하나는 데나리온이다, 하나는 만 개고 하나는 백 개다 해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멸망과 저주로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지만, 우리가 하는 용서는 사실 해 준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 안 해 준다고 산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하고 우리 사람이 하는 용서에는 중요한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를 내가 해 보겠다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고,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용서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참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가운데 뭐가 잘못인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서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의 효과도 즉각 나타나지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려 하다가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다윗이 몰래 한 짓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한 거야 궁에 있었으면 알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요압에게 몰래 연락해 우리야를 죽게 만든 것까지 나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하나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소리 한 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안 그렇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판단력도 모자랍니다. 용서를 해 주려면 용서해 줄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뭘 어떻게 용서할 건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엉터리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했다 하고 누가 전해줍니다. 당장 찾아가서 한 판 벌이면 안 되겠지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전해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내 욕을 했다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욕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맞다면 용서 잘 했지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용서한 것 아닙니까? 용서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백 퍼센트 알 수가 없으니 용서를 해도 늘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용서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 가운데 아전인수라는 게 있지요. 제 눈에 물 대기. 착각과 오해가 넘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나한테 좋게 해석하면서 삽니다. 운전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잘못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한 걸로 해석하면서 삽니다. 그런 본능 덕분에 사람이 정신병에 안 걸리고 살아간다, 그런 소리를 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백 퍼센트 정확한 사실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메조키스트 본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착각도 참 많이 합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분노하거나 대들지는 않지요. 주님 말씀대로 조용히 용서해 주는데 이게 엉터리일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뛰어난 기억력

우리가 제대로 용서하기 힘든 첫째 이유가 우리 판단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돌 머리라 하는데 돌 머리의 좋은 점은 한 번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진다는 점이지요. 종이에 쓴 건 쉬 없어지지만 돌에 새겨 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는 종이 아니라 물처럼 희미하던 머리가 남을 용서할 때는 돌이 됩니다. 용서해준 건 좋은데 그렇게 용서한 게 지워지지 않고 내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용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절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43:25; 렘31:34). 용서한 걸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뿐 아니라 나 이거 모른다, 나 이거 잊었다, 하시면 그걸 모르거나 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신 참 뜻은 한 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그걸 들먹거리고 어찌고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나중에 또 생각하거나 말할 작정이려면 용서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혹 용서했다 하고서도, 본인은 정말 용서한 줄 생각하고서도 나중에 그게 다시 생각이 나거나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그건 하지도 않은 용서를 했다고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기만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전에 내가 이것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것도 봐주고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하면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난 기억도 가물가물한 몇 해 전 이야기까지 하나도 안 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았나,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었는데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사람이 워낙 좋다 보니 용서해준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말은 봐줬다, 그냥 눈감고 지나갔다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참고 넘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냥 봐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지금 와서 그걸 들먹이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건 참고 넘어간 게 아니지요. 나중에 크게 터뜨리려고 쌓아둔 거지요. 봐줬다 하고 옛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봐준 게 아니고 나중에 무기로 쓰려고 비장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때 한판 벌이고 말지 지금 이렇게 터뜨리기까지 그 동안 속에 담아두고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보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한 판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갑니다. 왜 오래 갑니까? 용서를 해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용서하지 말고 말하고 싸움도 하고 한판 벌이는 게 낫습니다.

이 잘난 나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치 않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예뻐서 안 됩니다. 교만이지요. 용서해준 내가 너무 대견해서, 용서한 게 너무 뿌듯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 그게 내 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나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까지 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세

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죄를 안 짓고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도 다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지요.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 일도 그렇게 나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 위험합니다.

용서가 공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용서해준 그 사람과는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판 벌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저 나 혼자 정죄도 하고 용서도 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일 없는 듯 나를 대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용서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벽이 됩니다. 상대방이 보는 우리는 그저 너나 나나 주 안의 형제자매인데 내가 보는 우리는 너를 용서해준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불균형이지요.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아는 불균형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못 됩니다. 마음에 벽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눅 17:1-10). 그 정도 용서를 하려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자 주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 먹을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주인이 먹을 동안에는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도 무슨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진짜 종은 그렇게 끝까지 수고하고도 저는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함부로 용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판단력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기억력이 너무 좋기 때문이고, 셋째는 용서의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용서가 참 어렵고 그래서 함부로 용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넷째 이유는 용서는 상대방을, 주 안의 형제자매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그 전에 다른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지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죄를 사해주는 거지요? 용서를 하자면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정죄를 해야 되지요.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용서고 뭐고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정신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롬 14:15). 그런데 용서를 하자면 이 정죄를 먼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용서라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용서의 화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셉이지요? 형들이 처음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읽다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겉으로 한 행동은 우리가 보통 용서한다 할 때 하는 행동 맞습니다. 형들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일절 보복을 안 했습니다. 보복이 다 됩니까? 오히려 형들을 저 있는 곳으로 불러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형들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들의 교육도 요셉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창 50:17). 그러나 요셉은 용서한다 안 했습니다. 대신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형들이 저지른 악을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셨으니 내가 형들의 잘잘못을 시비할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하자면 정죄부터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 몫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용서

그래서 결론은 뭘니까? 용서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해야지요. 예수 믿는 게 알고 보면 이 용서하는 한 가지에 다 달렸는데 용서를 안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요. 다만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전인격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는데 그 닮은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면 지적인 판단, 감정적인 움직임, 의지의 결단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담겨야 됩니다. 그런 용서가 아니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하지도 않은 용서를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아예 용서하지 말고 차라리 한 판 붙어 버리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용서라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가운데도 엉터리가 많은데 내가 직접 보고 듣지 못한 걸 제대로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 우선 내가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나,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볼 때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게 분명한가, 피해를 입었다면 돈이 손해가 났나, 몸이 다쳤나, 자존심이 상했나,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용서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상황이라면 용서하기 전에 잊을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잊지 않는다면 자꾸 생각이 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저도 모르는 사이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용서까지 받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가 용서해 준 그 사람과 하나를 이룰 수 없으니 주님의 몸인 교회에도 손해가 갑니다. 용서는 여기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생각조차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이라서 생각에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입밖에 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용서한 그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은밀한 핑계로 삼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용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서도 용서했다는 착각에 늘 빠져 삽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는데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용서할 생각은 안하면서 용서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나는 옳다는 교만의 죄, 내 이웃은 죄를 지었다는 정죄의 죄를 오늘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저 용서 못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 안 하는 건 대안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되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력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 못 합니다.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용서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베푸는 용서 말고 내가 받은 용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받아야 할 그 용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그 용서의 힘으로 나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방법은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용서받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하신 부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악한 종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고서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료들 용서 못 하고 감옥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기쁨, 참 감사가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지 알 수가 없으니 아무 느낌도 없고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다 하시는데도 도대체 감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즐거운 표정 하나 안 짓고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하는 용서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해야 됩니다. 상황이 정확한지 알아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도 백 퍼센트 파악 못 합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참는다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내 이웃은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확인하고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상황은 잘 몰라도 또 기억력이 남보다 좀 좋아도 교만의 죄에도 안 빠지고 이웃을 죄인으로 만드는 잘못에도 안 빠지고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흘러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합니다 (히 11:22). 그 약속의 핵심은 그

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해 줄 용서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서도 멋진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없어 믿음을 더해 달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저런 용서 많이 했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죄도 또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 심판 때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용서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